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 코로나19 정부 대응과 사회통합적 고려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 정부는 봉쇄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ICT를 이용한 감시정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두었다.
-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준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 등 하위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노력과 피해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0년 8월 전 세계 감염자는 거의 2,200만 명에 가깝고, 사망자는 77만 명을 넘어섰다. 아직도 감염이 진정되기는 커녕, 지수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과 의료의 최강국을 자부했던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면서 과연 선진국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초기 대구를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 양상을 보였으나

보건당국의 효과적 관리와 국민의 협조를 통해 봉쇄조치 없이도 신규 감염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보건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3%로 낮추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2020년 2/4분기 실질 국민총생산이 전기 대비 3.3%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1/4분기(-1.3%)에 이은 연속 역성장 기록이다.

한편, 경제적 충격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고질적 양극화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앞에서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보건의 영역을 넘어, 경제를 흔들고, 사회통합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관련 승인통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나름의 공신력을 가진 국내외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대중의 인식과 행태, 그리고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을 짚어 볼 것이다.



###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정부 대응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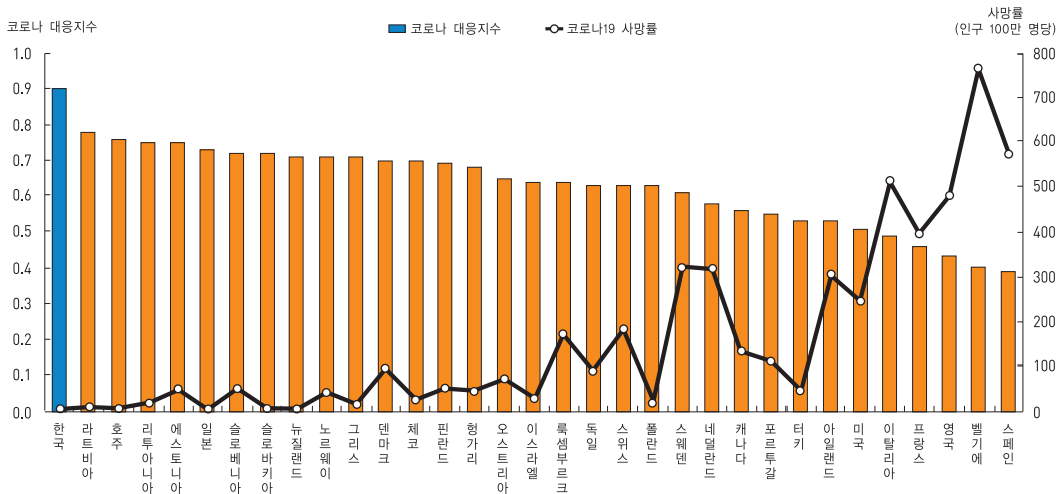
2020년 6월 Sachs(2020) 등은 지속가능발전과 코로나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여기서는 OECD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효과성을 비교했는데, 비교 기준으로 코로나 대응지수(Covid Index of Epidemic Control, CIEC)를 활용했다.

각국의 코로나 대응지수는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Mortality rate), 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이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 Effective Reproduction Rate, ERR), 통제효율성(Efficiency of Epidemic Control, EEC) 등 3가지 지표를 표준화하고 합산 및 평균하여 만든 종합지수이다. [그림 XI-15]는 OECD 33

개국의 코로나 대응지수와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0.90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일본 0.73, 미국 0.51, 영국 0.43 등 주요 선진국을 압도하는 결과였다. 2020년 5월까지를 놓고 볼 때, 주요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우수한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Oxford Coronavirus Government Response Tracker)은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비교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엄격성지수(Stringency and Policy Indices)를 제시했다. 이 지수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을 17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구성했는데, 해당 지표는 학교 폐쇄 등 억제정책 8개(C1-C8), 긴급재난지원금

[그림 XI-15] OECD 국가의 코로나 대응지수와 사망률, 2020.3-5



주: 1) 사망률은 2020년 5월 12일 기준임.

2) 코로나 대응지수는 2020년 3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됨.

출처: Sachs, J., et 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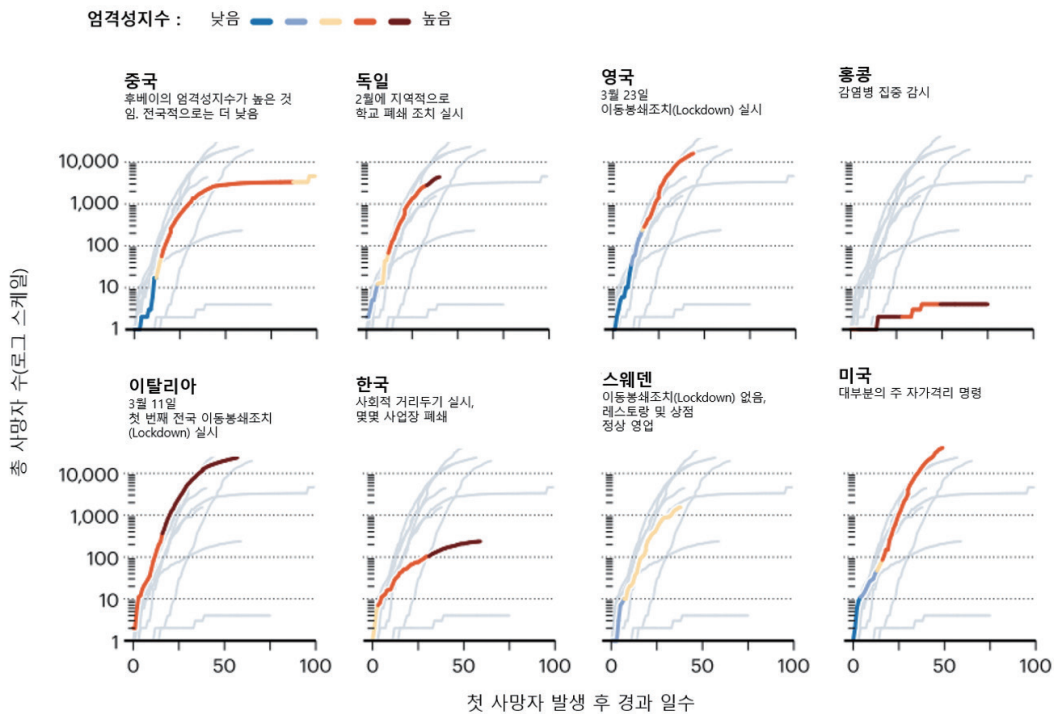
등 경제정책 4개(E1-E4), 응급의료 투자 등 보건 정책 5개(H1-H5)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억제 정책의 경우, 학교폐쇄(C1, 0:정책 없음~03:모든 학교폐쇄), 직장폐쇄(C2), 대중행사금지(C3), 모임금지(C4), 대중교통운영제한(C5), 자택격리(C6), 국내이동제한(C7), 해외여행제한(C8)에 대한 정부 정책을 평가한다. 2020년 8월 31일 현재, 전 세계 177개국의 평균 엄격성지수는 56.6(중위값 57.4)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54.2이었다(100이 가장 엄격).

전염병 방역 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엄격성과 적시성이다. 가장 이른 시간에 적절한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방역 효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XI-16]은 Gibney(2020)가 세계 주요 8개국의 엄격성지수 추이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히 정부 정책의 엄격성이 높다고 좋은 방역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상당히 초기에 이동봉쇄조치(Lockdown)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정책을 펼쳤으나 그 효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림 XI-16]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엄격성지수와 사망자 수 추이,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 후 100일



출처: Gibney 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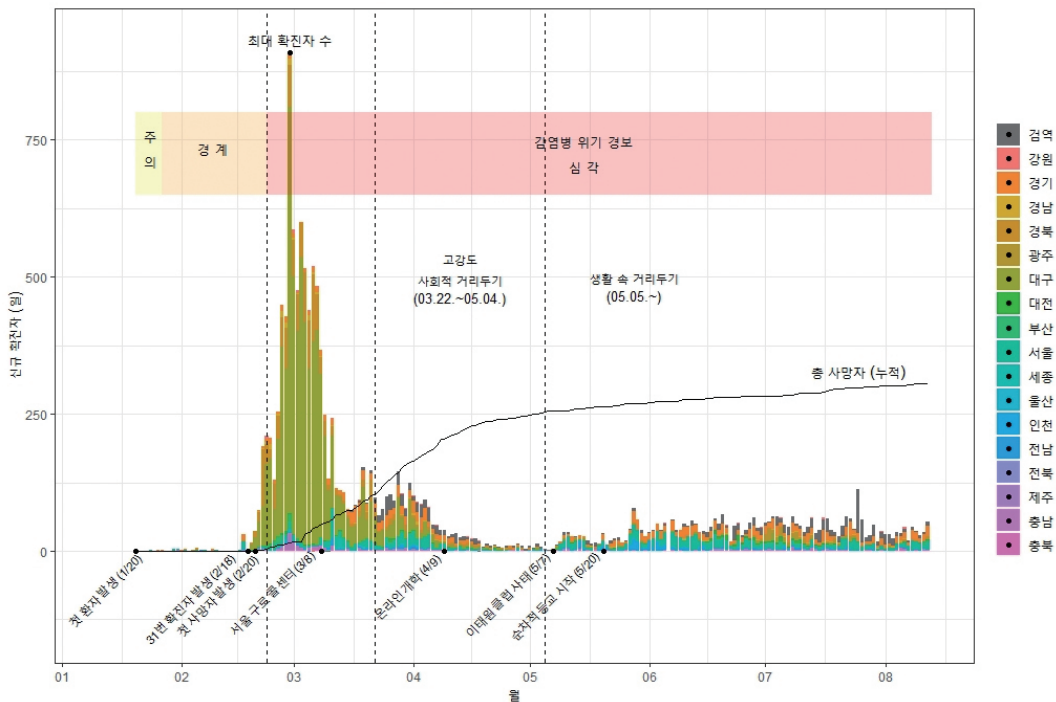
###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그림 XI-17]은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대응정책과 지역별 일간 확진자 수 및 누적 사망자 수를 함께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고,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월 20일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2월 23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했고,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2월 29일 확진자 수 909명이 발생하면서 일 최고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 집중되었던 환자 발생은 수도권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3월 8일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인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정부는 3월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업 병행을 위해 교육부는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 5월 초에 이르러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5월 5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종

[그림 XI-17]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추이와 일별 확진자 및 누적 사망자 수, 2020.1~8



출처: 1) 2020년 1월 20일~2월 29일 자료: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정례브리핑 09시 기준, 시도별 홈페이지 참고).  
2) 2020년 3월 1일~8월 12일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 00시 기준).



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5월 7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새로운 확진자가 발견되었다. 역학조사 결과 이 확진자는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후로 관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수도권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었다. 특히 이 클럽들에는 성소수자 모임 클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비난 현상이 발생했고,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의 방문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이태원 사태의 여파로 정부는 5월 11일 등교 개학 추가 연기를 발표하여,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학생 등교가 개시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는 ICT가 코로나19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대표적 예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SKT, KT, LGT), 22개 신용카드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활용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기본권 침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 대응의 핵심은 봉쇄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ICT를 이용한 감시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놓고 볼 때 한국의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과를 단지 정부 정책의 성과로만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보다 더욱 강력한 봉쇄 정책을 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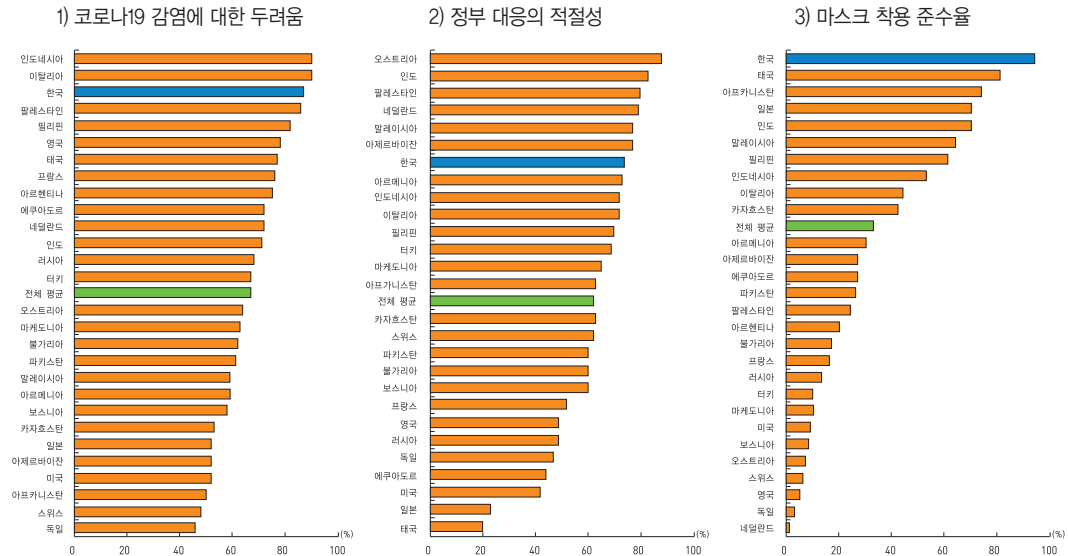
에 실시한 국가들도 있으나 이들의 성과는 우리나라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방역에 협조하는 국민의 행태일 수 있다.

## 대중의 인식과 행동

아직 우리나라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중의 인식과 행태에 대한 승인통계는 없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리서치회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국 국민의 인식과 행태를 묻는 비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갤럽인터네셔널(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은 2020년 3월 11-22일 사이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 28개국 성인 총 2만 4,652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화·온라인조사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결과는 [그림 XI-18]과 같다. 이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며, 그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잘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XI-18]의 조사는 한국에서 3월 17-20일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그 이후에 실시된 2차와 3차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두려움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2020년 4월 3-12일에 실시된 18개국 대상 조사(2차 조사)에서도 두렵다는 응답이 89%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2020년 6월 2-23일 실시된 19개국 대상 조

[그림 XI-18] 세계 주요국 일반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 관련 인식과 행태, 2020.3



주: 1) 전 세계 28개국 성인남녀 24,652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조사기간은 2020년 3월 11~22일임.

2)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나 자신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두렵다'에 대한 동의 비율임.

3) 정부 대응의 적절성은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임.

4) 마스크 착용 준수율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임.

출처: 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 GIA Snap Poll on the COVID-19 in 28 Countries, 2020.3.23.

사(3차 조사)에서는 두렵다는 응답이 86%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 역시 74%(1차), 75%(2차), 85%(3차)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 20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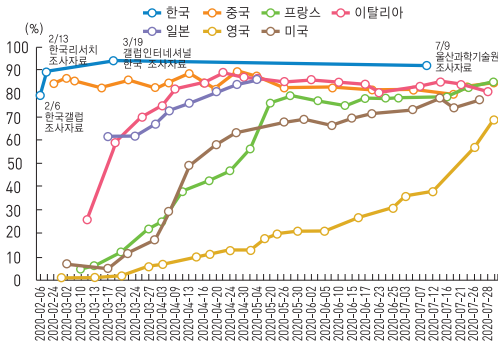
두려움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가 권고하는 방역수칙을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방역수칙 중에서도 방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다.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의 논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다양한 행태 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염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Zhang, R. et al., 2020).

[그림 XI-19]는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조사자료들을 활용해 주요 국가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준수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준수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1차 갤럽인터네셔널 조사 한국 자료 94%).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방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 쓰기 행태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빠르게 적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XI-19] 주요 국가의 마스크 착용 준수율, 2020.2-7



주: 1) 각국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마스크 착용 준수율은 외출 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YouGov가 제공하는 국제비교 데이터와 국내 유사 조사 결과를 결합하여 저자 작성.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87호(2020년 2월 1주)」, 2020.2.7,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65호) 여론 속의 여론」, 2020.2.24, 울산과학기술원, 코로나19 관련 자체 조사 결과, 2020.7.9, 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 *GIA Snap Poll on the COVID-19 in 28 Countries*, 2020.3.23, YouGov, *Personal measures taken to avoid COVID-19* (<https://yougov.co.uk/topics/international/articles-reports/2020/03/17/personal-measures-taken-avoid-covid-19>).

## 코로나19와 양극화 - 사회통합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봉쇄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ICT 기술을 통한 감시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우수한 방역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비교적 신속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정책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런데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4월에 수행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

해 소득이 감소했지만, 특히 하위계층(64%)이 중상위 계층(41%)보다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5월의 조사 결과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하위계층 소득감소(59%), 중상위 계층 소득감소(28%)).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이러한 양극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5.41배로서 2019년의 5.18배에 비하여 확대되었다. 2020년 2분기의 경우 배율이 4.23배로 2019년의 4.58배에 비하여 개선되었는데,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전소득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의 감염위험 및 이로 인한 사망위험 역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뉴욕타임즈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의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의 인종 간 불평등을 분석한 2020년 7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라틴계와 흑인의 경우 백인들보다 감염자가 될 확률이 3배나 높았고, 사망할 확률도 2배나 높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신빙성 있는 관련 통계를 얻기 어렵지만, 대구지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감염자가 될 확률이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에 비해 3배나 높았다<sup>1)</sup>. 또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위험은 건강보험료 상위 20% 직장가입자보다 2.8배 컸다는 결과도 있다.<sup>2)</sup>

1) 대구 MBC, 2020. 7. 7.  
 2) MBC 뉴스, 2020. 7. 9.



저소득층의 경우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일하는 환경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규모 감염을 일으켰던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아 코로나19 사망 위험도 클 수 있다.

### 우리는 성공했는가? 열린 결론과 과제

지금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공했는가? 중국의 봉쇄정책과 비교하여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통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대응의 대척점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부각하고, 민주적 시민성이 높고, 수평적 개인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한다. 한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마스크 쓰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역대책이었고, 이걸 가장 잘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역시 이미 미세먼지나 공해 문제로 인하여 코로나19 이전에도 마스크 쓰기에 익숙했다는 의견,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의

견(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민폐)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이에 대한 답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2차 유행과 3차 유행이 번져나가면서, 새로운 확진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며, 우리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는 이미 양극화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간격을 더욱 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완화되었다는 것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었다.

한편, 확진자에 대한 비난 현상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복귀와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코로나 완치 후 복귀가 불가능했던 학원 강사의 이야기, 확진자나 접촉자를 해고한다는 이야기 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코로나 이후의 과제를 보여준다.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노력과 피해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시민의식의 성숙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0.4.14. 「'20.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보도참고자료.
- 통계청. 2020.8.20.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 한국갤럽. 2020.4.3. 「데일리 오피니언 제395호(2020년 4월 1주)」. 한국갤럽.
- \_\_\_\_\_. 2020.5.8. 「데일리 오피니언 제400호(2020년 5월 1주)」. 한국갤럽.
- 한국은행. 2020.7.23.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
- “저소득층 코로나 더 위험’..통계로도 확인.”〈대구 MBC〉. 2020. 7. 7. <https://dgmbc.com/article/ELq445HBgTS>
- “코로나19 사망 위험, 의료급여 저소득층이 2.8배.”〈MBC뉴스〉 2020. 7. 9.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200/article/5836421\\_32496.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200/article/5836421_32496.html)
- 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 2020. 8. *3rd Wave of Gallup International Survey on the Corona Crisis: COVID-19 and the World afterwards*. <https://www.gallup-international.com/wp-content/uploads/2020/08/Covid-19Wave-3-1.pdf>
- Gibney E. 2020. “Whose coronavirus strategy worked best? Scientists hunt most effective policies.” *Nature*. 2020 May; 581(7806):15-16. doi: 10.1038/d41586-020-01248-1. PMID: 32341558.
- Richard A. Oppel Jr., Robert Gebeloff, K.K. Rebecca Lai, Will Wright and Mitch Smith July. 2020.7.5. “The Fullest Look Yet at the Racial Inequity of Coronavirus.”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7/05/us/coronavirus-latino-african-americans-cdc-data.html>
- Sachs, J., Schmidt-Traub, G., Kroll, C., Lafortune, G., Fuller, G., Woelm, F.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OVID-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hang, R., Li, Y., Zhang, A.L., Wang, Y., Molina, M.J. 2020. “Identifying airborne transmission as the dominant route for the spread of COVID-19.” *Proc Natl Acad Sci U S A* 117, 14857-14863. <https://doi.org/10.1073/pnas.2009637117>

